

# 대학생들의 아버지와 관계적 변수 및 자아탄력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

윤 경 자(동의대 교수) · 임 주 영(동의대 강사)

성취동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아동 및 초기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고 인생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.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적응 등에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. 현대 한국가족은 가족해체나 사회적 경쟁 등의 영향으로 가족간 유대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. 특히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영향력이 그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한국가족에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주변인의 범위에 머무른다는 우려가 높은 시점에 아버지와 관계가 대학생들의 성취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. 또한 자아탄력성도 인생에서 성취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성취동기의 도전적인 본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. 이를 위해 남녀대학생 324명을 대상으로 기초통계와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첫단계 모델에서는 아버지 관계척도를 구성하는 아버지친밀, 아버지헌신, 아버지존경, 및 아버지엄격과 자아탄력성 변수들이 투입되었고, 2단계 모델에서는 대학생 성별과 학년이 추가되었다.

통계분석 결과를 보면, 대학생들의 성취동기는 각 하위척도에 따라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났다. 성취동기 모험심은 1단계 모델에서 아버지친밀( $\beta=.25$ )과 자아탄력성( $\beta=.58$ )에 의해 각각  $p<.005$ 와  $p<.0005$ 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. 2단계 모델에서는 아버지친밀( $\beta=.26$ ,  $p<.005$ ), 자아탄력성( $\beta=.56$ ,  $p<.0005$ ), 성별( $\beta=-.10$ ,  $p<.05$ ), 학년( $\beta=-.14$ ,  $p<.005$ )이 유의하게 나타났다. 설명력은 각각 38%와 41%였다.

성취동기 과업지향은 1단계 및 2단계 모델에서 각각 아버지헌신( $\beta=.16$ ;  $\beta=.17$ ;  $p<.05$ ), 아버지엄격( $\beta=-.15$ ;  $\beta=-.14$ ;  $p<.05$ ), 자아탄력성( $\beta=.44$ ;  $\beta=.43$ ;  $p<.0005$ )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(설명력은 모두 27%). 또한 성취동기 도전의식은 1단계 모델에서 아버지엄격( $\beta=-.12$ ,  $p<.05$ )과 자아탄력성( $\beta=.50$ ,  $p<.0005$ )이, 2단계에서는 자아탄력성( $\beta=.49$ ,  $p<.0005$ )과 학년( $\beta=-.11$ ,  $p<.05$ )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(수정된  $R^2$ 은 각각 .28과 .29).

성취동기 책임감은 1단계와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에 의해 모두 유의한 영향( $\beta=.42$ ,  $p<.0005$ )을 받았으며, 성취동기 미래지향성도 1단계와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영향( $\beta=.46$ ,  $p<.0005$ )을 주었다(설명력은 각각 22%와 21%). 성취동기 자신감도 1단계 및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영향( $\beta=.55$ ,  $p<.0005$ )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(수정된  $R^2$ 은 모두 .36).